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대학생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임명재¹, 이상훈², 김영기^{3*}

¹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 부교수, ²한서대학교 융합교양학부 조교수, ³한서대학교 교육혁신원 연구교수

The Effect of Core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Tutoring Program on Learning Satisfaction in COVID-19

Myoung-Jae Lim¹, Sang-Hoon Lee², Young-Gi Kim^{3*}

¹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Aviation Tourism, Hanseo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Innovative Education, Hanseo University

³Research Professor, Educational Innovation Institute, Han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대학생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대학 정책 내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향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대학생 33명, 코로나19 이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대학생 72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코로나19 이전 H대학의 핵심역량의 구성 요인 중 자기혁신, 도전, 소통, 조화, 성실, 문제해결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코로나19 이후 핵심역량의 자기혁신, 도전, 소통, 조화, 성실, 문제해결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을 살펴보면,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높은 설명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도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요인의 각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를 살펴보면,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높은 비율로 설명력 확보되었고, 핵심역량의 구성 요인 중 자기혁신, 조화는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전이 학습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대학생에게 대면으로 진행할 때는 도전요인을 강조가 필요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는 자기혁신요인이나 조화요인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코로나19, 튜터링, 대학생, 핵심역량, 학습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new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rograms and comparative studies in university policy by examining how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tutoring programs affect learning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33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tutoring program before COVID-19 and 72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tutoring program after COVID-19 were surveyed and statistically processed. As a result,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innovation, challenge, communication, harmony, sincerity, problem solving and learning satisfaction among the components of core competencies of H university before COVID-19.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innovation, challenge, communication, harmony, sincerity, problem solving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core competencies after COVID-19. Second, in the pre-COVID-19 period, core competence had a high explanatory power on learning satisfaction,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in each of the remaining components except for the challenge. After COVID-19, core competence was secured with a high rate of explanatory power, self-innovation and harmony among the components of core competenc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challeng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learning satisfac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when students participate in the tutoring program,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challenge factors and when they proceed in non-face-to-fac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self-innovation factors or the harmony factors rather than the challenge factors.

Key Words : COVID-19, Tutoring, University students, Core competencies, Learning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Young-Gi Kim(sweetkyg@hanmail.net)

Received April 8, 2022
Accepted May 20, 2022

Revised May 11,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과학, 교육,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1]. 그리고 코로나19가 대학생들의 행동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경험에 현저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2]. 특히, 국내 대학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대학 신입생들은 비대면 중심의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학교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학생 간의 유대감 형성의 어려움 발생함과 동시에 학업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에 직면하여, 불안한 대학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3].

이와 같은 상황은 학생들의 학사경고를 비롯하여 학업 중도탈락과 학업중단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방의 위치한 대학에서 더욱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복근, 김병삼, 정준오(2009)와 최미나(2015)에 의하면 지방대학은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와 대학에서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동료 튜터링 프로그램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4, 5].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동료 튜터링은 2000년대 이후에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어 확산되어졌다[6-8]. 대학에서 튜터링 프로그램은 동료 간의 상호교류와 공유,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학업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9].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 등이 증가하였고, 온라인 환경에서 학생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고립감을 극복하며, 적극적인 학습 참여와 구성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온라인 환경에서 실시간 튜터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10-12]. 온라인 실시간 동료 튜터링 프로그램은 또래 간의 친밀성을 활용하여 편안하고 설득력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교수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학생의 요구와 상호작용을 튜터가 대신함으로써 학습자는 즉각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받을 수 있다[13, 10]. 코로나19 이전에 튜터링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대면으로 튜터와 튜티가 1대1로 매칭이 되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만나서 가르치며 배웠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대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Zoom, Webex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동료 튜터링 프로그램이 튜티 뿐만 아니라 튜터의 학업성취 및 역량 강화

에 효과적이어서,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튜터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달과 성취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6, 13-15].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대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고 대학마다 가지고 있는 인재상을 달성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개인의 인지적 역량을 포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정의적 역량, 포괄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필요한 사회적 역량까지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16, 17]. 이러한 핵심역량은 조미영과 김미영(201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자 하여 핵심역량과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핵심역량의 수준이 높아지면 학습만족도가 높아진다'라는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8]. 그리고 이광훈과 최홍섭(2017)의 연구에서 핵심역량 뉴스포츠 프로그램이 여학생의 체육수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따라서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튜터링 프로그램의 학습만족도를 연계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튜터링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고 학업의 욕구를 채워주며 학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업 부진 대학생들의 성적 향상과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업적 지원과 학습을 시작,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은 대학생의 학습 과정에서 몰입할 수 있는 학습자환경을 마련해 주는 부분과 심리적인 면까지 고려한 다차원적으로 도움을 주는 연구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반응과 성과를 알아보고, 그 차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즉,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한 대학생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비교함으로써 대학 정책 내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향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 중인 튜터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핵심역량과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과제다. 이와 같은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 연구문제1.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대학생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조사 대상의 개요

본 연구는 충청권에 있는 H대학의 교육혁신원에서 운영 중인 2019학년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과 2020학년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을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9년도는 코로나19 이전 상황, 2020년도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검토하게 된다. 조사 대상인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을 위한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절차

Table 1. COVID-19 major work of the pre- and post-tutoring program

2019 (Before COVID-19) operating procedures and main tasks		2020 (After COVID-19) operating procedures and main tasks	
It is an activity that one tutor and one tutee meet and teach and learn directly by setting face-to-face, offline, time and place.		Non-face-to-face, online real-time zooming, webex, mobile phones, etc.,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by one tutor and one tutee	
business announcement (University homepage)		Business announcement (University homepage, Education Innovation Institute plus friends)	
Group selection (Use/Evaluation Team of Evaluation Indicators)		Group selection (Use/Evaluation Team of Evaluation Indicators)	
Orientation (Centered on Selective Organizations)		Orientation (Centered on Selective Organizations)	
Field monitoring (Operation of business)		Only the selected team primary activity grant	
performance presentation	Utilization of the First Submitted Final Report	Field monitoring (Learning Consulting Performance)	
	Second presentation review (Evaluation Team)	Operation result	Utilization of the First Submitted Final Report Second presentation review (Evaluation Team)
Thought formula (Citation for Excellent Organizations and Teachers)		Thought ceremony (Citation for Excellent Organizations and Teachers)	
		All performance bonuses for outstanding team awards and activities teams	

와 구성 및 내용은 Table 1에서 제시되었다. H대학에서는 매 학기 교육혁신원 주관으로 튜터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부 전공과목 수강이나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이전에 대면(오프라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튜터 1인과 튜티 1인이 만나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형태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위험요인이 발휘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줌, Webex,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튜터1인, 튜티1인이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실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는 확연히 다른 대학 교육환경 속에서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튜터링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는 사업 공고를 시작하여 오리엔테이션, 학생들을 통한 현장모니터링, 운영의 결과 1차와 2차를 거쳐서 우수팀을 선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시상식을 하게 된다.

2.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서산시 H대학교 교육혁신원에서 진행한 2019학년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 33명(31%)과 2020학년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 72명(69%)이 그 대상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 전부를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핵심역량

핵심역량의 측정도구는 H대학교 재학생의 핵심역량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20]. 이 척도는 총 30개 문항으로 성실(5개 문항: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노력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여 목표를 달성), 문제해결(5개 문항: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트렌드를 분석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해결방안 모색하고, 성과를 창출), 자기혁신(5개 문항: 자신의 행동과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성찰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더불어 타인에 모범이 되는 자아의 모습을 추구), 소통(5개 문항: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추구하는 목표를 일), 조화(5개 문항: 자신이 속한 사회 및 문화, 커뮤니티의 특성에 맞게 융화하고, 협력을 통해 네

트위크를 공고히 하여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 역량), 도전 (5개 문항: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기회를 모색하는 역량)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척도이다. 2019년 핵심역량의 전체 신뢰도는 .959, 성실 .965, 문제해결 .964, 자기혁신 .973, 도전 .968, 조화 .965, 소통 .966이고, 2020년 핵심역량의 전체 신뢰도는 .972, 성실.950, 문제해결 .949, 자기혁신 .950, 도전 .950, 조화 .958, 소통 .947이다.

2.3.2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 H대학교 교육혁신원에서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21].

이 척도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2019년 학습만족도의 신뢰도는 .967, 2020년 학습만족도의 신뢰도는 .946이다.

2019학년도 학습만족도의 경우, 첫 번째 요인은 7개의 문항으로 1개의 요인으로 묶였고, 이 요인을 학습만족도라고 하였다. 학습만족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7이다. 신뢰도 검증에서 신뢰계수 값이 .65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 문항 구성이 타당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는 KMO값이 .856, Bartlett의 유의확률은 $p=.000$ 으로 확인되어 요인분석에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전체 변량의 81.7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만족도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학습만족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Learning Satisfaction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classification (questions)	learning satisfaction	Cronbach's α
learning help	.954	.967
improvement of learning level	.935	
university life interest improvement	.930	
benefitability	.920	
goal achievement	.918	
overall satisfaction	.909	
learner confidence	.859	
reparticipation	.799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처리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핵심역량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의 핵심역량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다. 2019년 코로나19 이전 핵심역량의 자기혁신($r=.698, p<.01$), 도전($r=.796, p<.01$), 소통($r=.812, p<.01$), 조화($r=.826, p<.01$), 성실($r=.795, p<.01$), 문제해결($r=.813, p<.01$)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로 밝혀졌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핵심역량의 자기혁신($r=.892, p<.01$), 도전($r=.644, p<.01$), 소통($r=.734, p<.01$), 조화($r=.729, p<.01$), 성실($r=.768, p<.01$), 문제해결($r=.743, p<.01$)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re Compete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division		learning satisfaction	
		pre 2019	2020 Later
core competence	self-innovation	.698**	.892**
	challenge	.796**	.644**
	communication	.812**	.734**
	harmonization	.826**	.729**
	sincereness	.795**	.768**
	problem solving	.813**	.743**

** $p<.01$

3.2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학생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2019년 코로나19 이전을 살펴보면 모형의 F값은 13.429, 유의확률은

0.00(p<0.05)으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인 R²값이 0.756(adj R²=0.700)으로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를 약 70.0%정도 설명할 수 있다. 핵심역량 세부요인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도전이 .635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하고, 표준화 회귀계수에서 .703으로 나타났다. 즉, 도전이 학습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The Effect of Core Competence on Learning Satisfaction

division		B	SE	β	t
pre 2019	(Regulation)	1.408	.397		3.546**
	self-innovation	-.374	.309	-.396	-1.209
	challenge	.635	.312	.703	2.035*
	communication	-.180	.501	-.210	-.360
	harmonization	.589	.599	.687	.983
	sincereness	-.043	.312	-.050	-.137
	problem solving	.132	.329	.142	.403
	R ² =.756, adj R ² =.700, F=13.429***				
2020 Later	(Regulation)	1.244	.412		3.019**
	self-innovation	.420	.162	.529	2.586*
	challenge	-.343	.166	-.459	-2.069*
	communication	.182	.181	.208	1.009
	harmonization	.649	.178	.612	3.640***
	sincereness	-.205	.190	-.209	-1.081
	problem solving	.093	.164	.111	.568
	R ² =.599, adj R ² =.562, F=16.170***				

*p< .05, **p< .01, ***p< .001

2019년 코로나19 이후를 살펴보면, 모형의 F값은 16.170, 유의확률은 0.00(p<0.05)으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인 R²값이 0.599(adj R²=0.562)로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약 56.2%정도 설명할 수 있다. 핵심역량 세부요인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혁신이 .420으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하고, 표준화 회귀계수에서 .529로 나타났다. 즉, 자기혁신이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도전이 -.343으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하고, 표준화 회귀계수에서 -.459로 나타났다. 즉, 도전이 학습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조화는 .649로 유의수준 0.1% 하에서 유의하고, 표준화 회귀계수는 .612로 나타났다. 즉, 조화가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대학생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대학 정책 내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향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습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2019년 코로나19 이전 핵심역량의 구성요인 중 자기혁신, 도전, 소통, 조화, 성실, 문제해결과 학습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미영과 김미영(2018)의 연구에 의하면 핵심역량 정도가 높아지면 학습만족도가 높아지는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본 연구결과도 코로나19 이전 상황에서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도전하고자 하는 역량이 높아질수록 학습에 더 만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핵심역량의 자기혁신, 도전, 소통, 조화, 성실, 문제해결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미영과 김미영(2018)의 연구에 의하면 핵심역량 정도가 높아지면 학습만족도가 높아지는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본 연구결과도 코로나19 이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자기혁신, 도전, 소통, 조화, 성실, 문제해결 정도가 높아질수록 학습에 더 만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 학생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2019년 코로나19 이전을 살펴보면,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높은 설명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도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요인 각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전에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도전요인을 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를 살펴보면,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높은 비율로 설명력 확보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역량의 구성요인 중 자기혁신, 조화는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미영과 김미영(2018), 이광훈과 최홍섭(2017)

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전이 학습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미영과 김미영(2018), 이광훈과 최홍섭(2017)의 연구결과와 반대의 맥락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험요인이 발생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4.2 제언

결론을 통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이 연구는 충남지역 대학에 한 곳을 지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기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거나 확대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대학마다 튜터링 프로그램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이 코로나19 이후보다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에서의 활동보다 대면 상황에서 튜터와 튜티 간의 활동이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 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비대면 튜터링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온라인의 한계를 넘어 튜터와 튜티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교육환경을 고려한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도전요인이 학습자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도에서는 자기혁신과 조화요인이 학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도전요인의 경우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와 같이 학습 및 대학 생활에 위험요인이 등장하고, 비대면 중심의 학습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학생들에게 자기혁신을 유도함과 동시에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조화역량 수준 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이후에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핵심역량과 학습만족도 등에 사전, 사후 조사를 활용한 효과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Y. Hwang. (2022).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ental Student's about Online Classes Based on Non-face-to-face Education Cour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 289-297.
DOI : 10.14400/JDC.2022.20.2.289
- [2] J. W. Zhao & H. J. Park. (2022). The Influence of the COVID-19 Anxiety and Dietary Lifestyles on the Drone Food Delivery Service Attitud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 175-184.
DOI : 10.14400/JDC.2022.20.2.175
- [3] G. Y. Park & J. M. Lee. (2021). A Qualitative Study of Online Synchronous Peer Tutoring for Freshmen at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Tute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22), 583-605.
DOI : 10.22251/jlcci.2021.21.22.583
- [4] B. K. Sun., B. S. Kim & J. O. Jung. (2009). A Case Study on the Activity of Student Initiated Learning Community(Peer Tutoring).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2(4), 126-134.
DOI : 10.18108/jeer.200912.4.126
- [5] M. N. Choi. (2015). The analysis of awareness about operating conditions and needs of peer tutoring according to tutor and tutee's characters in peer tutoring of a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9(3), 190-207.
<http://www.riss.kr/link?id=A101715950>
- [6] Y. K. Kim & H. D. Song. (2015). The effects of Tutees' Perceived a Tutor Competency Level on Learning Outcome in Peer Tutoring Progra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5), 229-250.
<http://www.riss.kr/link?id=A105112065>
- [7] J. L. Arco-Tirado, F. D. Fernández-Martin & M.Hervás-Torres. (2020). Evidence-based peer-tutoring program to improve students' performance at the universit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5(11), 2190-2202.
DOI : 10.1080/03075079.2019.1597038
- [8] H. H. Jeong. (2020). Qualitative study of tutee's experiences in peer tutoring organized by institute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4), 327-358.
DOI : 10.24159/foec.2020.26.4.327
- [9] O. B. Kim & H. J. Kim. (2017). Identifying Predicting Variables of the Tutees' Learning Flow in Tutor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2), 563-584.
DOI : 10.24159/foec.2020.26.4.327
- [10] M. J. Kim & H. S. Kim. (2007). An Exploratory Study of the Implement of Web-Based Peer Tutoring. *The Journal of Education Information and Media* 13(1), 49-73.
<http://www.riss.kr/link?id=A75435096>
- [11] Y. J. Joo & J. Y. Kim. (2003). An Inquiry into Tutors Roles and Competencies in e-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4(1), 19-39.

http://www.riss.kr/link?id=A40006512

- [12] C. Johns & M. Mills. (2021). Online mathematics tutor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s. *Primus*, 31(1), 99-117.
DOI : 10.1080/10511970.2020.1818336
- [13] H. O. Heo, S. J. Woo & E. S. Kang. (2002). The Effect of Peer Tutoring and Learner Characteristic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in Computer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5(4), 19-29.
http://www.riss.kr/link?id=A106199319
- [14] S. Y. Yang, Y. S. Park, M. S. Jang, H. A. Ahn & K. Y. Kim. (2021). The Effects of Learning Community on College Students' Core Competency and Learning Competenc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9), 141-164.
DOI : 10.22251/jlcci.201818.9.141
- [15] H. E. Lee, J. I. Park, E. J. Kim, J. Y. Kim & T. W. Chung. (2020). An Analysis of the Tutors' Perception of Experiences in College Peer Tutoring Programs: Based on CQR-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4), 67-98.
DOI : 10.22251/jlcci.2020.20.24.67
- [16] M. H. Kang, M. J. Kim, B. K. Kim & J. W. You. (2013). Developing an Instrument to Measu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21st Century Skill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5(2), 373-402.
DOI : 10.17927/tkjems.2013.25.2.373
- [17] H. J. Lee. (2021).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Core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4), 33-43.
DOI : 10.22251/jlcci.2021.21.14.33
- [18] M. Y. Cho & M. Y. Kim. (2018). A Learning Readiness, Teacher-Student Inter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n Core Competency, Learner Motivation, and Learne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Effects of Self-Directe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3), 164-170.
DOI : 10.5762/KAIS.2018.19.3.161
- [19] K. H. Lee & H. S. Choe. (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y Diagnosis Tools and Systems of Hanseo University. Hanseo University Educational Innovation Institute.
- [20] Kmac. (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y Diagnosis Tools and Systems of Hanseo University. Hanseo University Educational Innovation Institute.
- [21] M. J. Im, A. K. Yang, D. M. Im, J. S. Mun, S. H. Lee, C. N. Ko, G. W. Sim & J. M. Park. (2019). Performance Report of the Education Innovation Institute of Hanseo University in 2019. Hanseo University Educational Innovation Institute

임 명 재(Myoung-Jae Lim)

[장학원]



- 2003년 2월 : 배재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관광학석사)
- 2007년 2월 : 배재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관광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관광이벤트, 관광마케팅,

인적자원개발

· E-Mail : tour@hanseo.ac.kr

이 상 훈(Sang-Hoon Lee)

[장학원]



- 2015년 2월 :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20년 2월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20년 4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융합교양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교수방법,

교육질관리

· E-Mail : lsh8533@hanseo.ac.kr

김 영 기(Young-Gi Kim)

[장학원]



- 2003년 2월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교육학석사)
- 2011년 2월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교육학박사)
- 2021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교육혁신원 연구교수
- 관심분야 : 통계, 융합교육, 청소년지도

· E-Mail : sweetkyg@hanmail.net